

사회



송편빚는 대학축제 19일 광주여자대학교 '송강 대동제'에서 이선재 이사장과 주자문 총장 등 교수와 학과 대표학생들이 축제 기간 학생들과 나누어 먹을 송편을 빚고 있다. 대동제는 20일까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울~광주 '귀성' 7시간

짧은 추석 혼잡 예상...연휴길 귀경길은 분산

올 추석 연휴기간 서울에서 광주·전남을 찾는 귀성 시간은 지난해보다 최대 1시간10분이 더 소요되고, 귀경 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교통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광주간 귀성시간은 7시간, 서서울~목포는 7시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서울~광주는 5시간40분 걸렸으며, 서서울~목포는 6시간50분이 소요됐다. 이 같은 이유는 올 추석이 주말과 겹쳐 예년보다 짧기 때문이다. 반면 귀경시간은 10월3일 개천절이 징검다리 연휴로 끼여 있어 광주~서울은 지난해보다 10분 줄어든 6시간40분, 서서울~목포는 지난해보다 2시간 줄어든 7시 2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올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28일~10월3일) 전국에서 모두 2925만명이 이동하고, 추석 당일인 오는 30일 최대 609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동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1.5%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 13.9%,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등이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이 3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서해안선 14.7%, 호남선(천안-논산선) 8.6%, 중부선 10.8%, 영동선 8.2% 등의 순이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9분 해질 18시 32분 달돋이 10시 45분 달질 21시 15분 푸른 가을 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았다. 광주: 구름조금 15/26°C, 목포: 구름조금 16/24°C, 여수: 구름조금 18/25°C, 나주: 구름조금 13/26°C, 완도: 구름조금 17/25°C, 구례: 구름조금 13/26°C, 강진: 맑음 14/25°C, 해남: 맑음 13/25°C, 장흥: 맑음 13/25°C, 순천: 구름조금 12/25°C, 영광: 구름조금 14/25°C, 진도: 맑음 14/24°C, 전주: 구름조금 14/25°C, 군산: 구름조금 15/24°C, 남원: 구름조금 12/25°C, 옥산도: 맑음 18/25°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0.5~1.0m 목포 04:41 09:49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0.5~1.0m 여수 11:48 05:09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17:21 22:22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23:54 17:49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최저/최고 14/26 16/26 17/26 17/26 16/26 16/26

울초 계약직 전환 '방과후 학교' 행정인력 시교육청 '없던일로' 논란

전담인력·학부모 거센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애초 봉사직이었던 '방과후 학교' 행정업무 전담인력 수백명을 법률상 계약직 신분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약직 신분을 부여했으나 무기계약직으로 승격채용하면 예산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다고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초·중·고교의 '방과후 전담인력' 285명과 1년 계약을 맺고 주5일 4시간 근무에 4대 보험가입, 월 50만원 가량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

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시작한 '방과후 학교'의 행정업무 지원하는 '방과후 코디네이터'(봉사직)로 일했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이 사업 시행처가 교과부에서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바뀌자 이들을 방과 후 전담인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계약 내용상 '전담인력'은 단순 봉사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계약직으로 인정돼 내년에 계약이 연장되면 내후년에는 신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전담인력을 모두 해고하고 대체인력을 뽑아 2년간 비정규직 전담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한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예산부담 때문에 이들을 선택 무기계약직으로 적극

채용할 수 없는 처지여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려 했다가 되레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을 자초하게 됐다 는 것이다. 더구나 시교육청이 아예 전담인력 재계약을 맺지 않고 대학생들을 활용한 봉사직들로 이들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담인력과 일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담당 장학관은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문제와 관련해 봉사직 전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이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벌초 주의보

추석 앞두고 예초기 사고·벌쏘임 잇따라

승모(45)씨는 지난 16일 추석을 앞두고 광주시 남구 대지동에 위치한 부모 묘지를 벌초하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막 예초기의 시동을 걸고 기계를 움직이려는 찰나 칼날이 왼쪽 무릎 위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승씨는 벌초를 포기하고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다. 민중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10여일 앞두고 벌초에 나섰다 예초기 안전사고와 벌쏘임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사고가 추석 전후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 15~16일 광주지역 일선 병원에는 주말과 휴일을 맞아 벌초에

나섰다가 예초기 안전사고와 벌쏘임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이 병원에 마다 4~5명에 달했다. 대부분은 예초 작업을 하다가 톨이나 흩에 눈을 다친 사고였고, 예초기 날에 다리나 손 등을 베이는 사고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일부 환자들은 자칫하면 중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병원들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예초기 사고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헬멧과 보호안경, 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벌쏘임 사고와 관련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긴 셔츠와 바지를 착용할 것으로 당부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남도의회 '교육공공체 인권 조례' 또 보류

전남도교육청의 '교육공공체 인권 조례안' 제정이 도의회에서 또 보류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상임위를 열고 도교육청이 상정한 교육공공체 인권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소속 위원간에 의견이 다르고 일부 수정도 필요하다 판단해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 의무를 담고 있으며 이들 교육공공체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옹호관과 인권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각계

제주 제피로스 GC 무기명 4인 선불카드 500만원 수도권 명문 골프장 7곳 · 2, 4인 주중 특별대우 제피로스 그린피 4명 주중 4만원, 주말 7만원 풍부한 수림과 토양을 갖춘 제피로스 골프클럽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원에 정규 18홀 (7,050yds, par72) 규모의 골프장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조성되어 있다. 제주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제주는 물론 전국 각지의 골프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접근성까지 좋은 골프장이다. 한라산을 향해 쪽 뿔이 나가 기명회원권으로 4명 전원 회원 대우를 받는다. 특히 수도권 제휴골프장 7곳에서는 주중에는 2-4인이 합인 혜택을 받는 파격적 혜택을 주고 있어서 골프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외의 온도와 골프장과의 연계하여 합인혜택을 주고 있어서 일석 삼조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피는 제피로스 골프클럽은 주중에 4만원, 주말엔 7만원을 적용 받으며,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가입문의: 02) 409-3700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外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강릉Set, 다담Set, 우진강로, 감사Set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위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할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